

코로나19 시대, 육아정책의 진화가 필요할 때

백선희 소장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위협으로 감염병 팬데믹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¹⁾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병 팬데믹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1~3단계로 수립하여 거리두기 강화 및 완화 조치 방안을 9월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고, 이후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 실시 등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일상이 생겨나고 있다. 영유아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됨에 따라 '기관' 중심의 사회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하는 부모들에게는 돌봄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용 안정성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대상인 영유아들에게는 부모의 육아 역량과 물리적 환경 차이에 따라 발달·성장에 있어서의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하게는 '가정'이 아동방임과 학대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부모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유아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에게도 일상의 변화가 큰 스트레스일 수 있고 아이들이 재난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은 성인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1) 중앙일보(2020.3.12). WHO, 결국 사상 세번째 '팬데믹' 선언... "코로나 통제가능"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084> 2020.9.1. 인출

성인의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전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병’과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듯이 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만큼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인생의 출발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이제 육아정책도 코로나19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생태계(가족-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